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a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on the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Risks of Sexual Abuse

이 미 경**

Lee, Mi Kyong

이 재연***

Lee, Jae Yeon

ABSTRACT

The present study assessed children's perceptions of risk of sexual abuse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in a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on the children's emotional respons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35 3rd and 145 6th graders, attending elementary school in Seoul. Instruments were the Sexual Abuse Situational Risk (Jacobs, Hashima, & Kenning, 1995) and the Children's Emotional Response Questionnaire (Garbarino, 198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1)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risk of sexual abuse by a stranger decreased, relative to those by familiar persons which increased after the program. Especially, 6th graders had higher perceptions of the likelihood of abuse by familiar persons than 3rd graders. Girls had higher perceptions of risk than boys. (2) Children perceived adults as more dangerous than adolescents both before-and after-program. (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risk of sexual abuse in public settings decreased, relative to perceptions of risk in private settings which increased after the program. Girls had higher perceptions of the likelihood of abuse in private settings than boy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y grade. (4) Children's emotional response did not reveal a significant chang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s.

* 본 논문은 1996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University of North Texas 대학원 재학중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I. 서 론

우리 사회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성장은 정신적인 풍요를 보장하기보다는 무분별하게 유입된 서구의 성문화로 인해 여러가지 심리·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바로 성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미 1950년 이후 미국 등에서는 아동 성학대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은 1980년대 말, 여성학자들이 사회속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심으로부터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성문제가 모든 사회의 공통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1991a)의 상담건수에 따르면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등 전체 성폭행 418 건중 123건(29%)이 어린이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학대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었고 이러한 심각성은 1991년, 9살때 당한 성폭행의 충격으로 22년만에 가해자를 살해한 김부남 사건, 그리고 1992년에는 우리 사회에서 은폐되어 왔던 근친상간문제를 드러낸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으로 아동 성학대 문제가 여론화되었다. 또 한 성폭력 발생건이 미국, 스웨덴에 이어 1992년 현재, 세계 3위라는 놀랄만한 기록은 성학대 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사회 문제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 성학대의 사례와 인식의 증가로 성학대 예방 노력이 초보적이긴 하지만, 1993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용 성폭력 예방 비디오가 나왔으며,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손승아, 1992; 최영해, 1993)와 성학대 예방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와 실천(노경순, 1992) 등과 같은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을

온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방어행동에 미치는 효과와 실태에만 초점을 맞출 뿐,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실시한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들은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을 알지 못한채, 단지 아동들은 성학대 당할 위험을 지각하지 못할거라는 막연한 가정에서 비롯된 것들이며 아동들이 성학대 위험을 경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왔다(Melton, 1992).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동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학대 위험에 대한 지각을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성학대에 대한 사전 지식때문에 지각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성학대 위험들을 그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 발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성학대 위험 지각을 과악하는 것은 그 시기의 아동에게 적합한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나이든 아동들은 어린 아동들보다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Conte, Rosen, Saperstein, & Shermack, 1985; Daro, 1988; Finkelhor & Strapko, 1991; Liang, Bogat, & McGrath, 1993; Tutty, 1992; Wurtele & Miller, 1987b). 이것은 어린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조차도 조심하기에 충분한 위험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에 있어서 발달적인 차이를 알지 못하므로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학대 위험에 대한 지각은 잠재적인 가해자와의 친숙한 정도, 가해자의 연령, 그리고

가해장소의 공공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과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학대가 낯선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을 더 위협하다고 여기며(Saslawsky & Wurtele, 1986). 또한, Wurtele과 Miller-Perrin(1987a)의 연구에서는 나이든 아동들보다 어린 아동들은 낯선 사람과 사춘기전 아동을 가해자라고 더 많이 반응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는 없다는 가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들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연구들(손승아, 1992; 최영해, 1993; Garbarino, 1987; Hazzard, Webb, & Kleemeier, 1988; Finkelhor & Strapko, 1991; Kolko, Moser, Litz, & Hughes, 1987; Nibert, Cooper, Ford, Fitch, & Robinson, 1989; Wall, 1983; Wurtele & Miller-Perrin, 1986)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연구들(Conte, 1984; Garbarino, 1987; Hazzard, Webb, & Kleemeier, 1988)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어떠한 예방 프로그램이든 아동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나타난 아동의 정서적 반응 변화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학대 위험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고, 그러한 지각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하며,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나타난 정서적 반응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연구 문제

본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어떠한가?

1)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은 어떠한가?

2)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은 어떠한가?

3)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은 어떠한가?

2.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 정의

1) 성학대

성학대는 아동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아동 몸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거나 보려고 하는 것, 또는 아동에게 그들 몸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

제끔 하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소중한 부분은 수영복으로 가린 부분이다.

2) 성학대 위험

성학대 위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할 가능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상황의 위험을 구별하기 위하여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 가해 장소의 공공성 등의 상황 변인을 조작하였다. 즉,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는 아는 사람과 낯선 사람,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는 성인과 청소년,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는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로 나누었다.

3)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가해자란 아동들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E'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48명과 6학년 아동 161명, 총 30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10세 여아가 성학대의 가장 취약 연령이라고 보고한 Finkelhor(1979)의 연구 결과와 9-10세에서 성학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한 Kempe와 Kempe(1984)의 연구 결과, 그리고 1989년 1-6월동안 성폭행당한 서울 시내 초·중학생 79명 가운데 초등학교 3-4학년에 해당하는 9-10세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서울시

교육연구원(이화연, 1991, 재인용)의 조사결과와 여성적 외모에 비해 자신의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9, 10세인 초등학교 3, 4학년이 취약 연령이라고 한 박익생, 이영식, 이길홍(1991)의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령에 따른 지각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 아동의 학년과 성별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개인적 특성 (N: %)

내 용	구 분	실험집단 (N=135)	통제집단 (N=145)
학 년 (N=280)	3학년 6학년	71(52.6) 64(47.4)	72(49.7) 73(50.3)
성 별 (N=280)	남 아 여 아	73(54.1) 62(45.9)	78(53.8) 67(46.2)

2. 측정 도구

1)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Jacobs, Hashima와 Kenning(1995)의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을 본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제작한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과 성인이 다양한 상황에 함께 개입되어 있는 12개의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들에게 대비되는 2개의 그림을 1쌍씩 제시하였다. 아동들은 검사시작 전에 "성학대" 개념을 배우며 대비되는 2개의 그림들 중, 더 성학대 당할거라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택하게 된다. 이 때, 아동의 잠재적인 성학대 상황의 위험 지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상황에서 2개의 그림 중,

아동이 선택한 그림에는 1점을 주고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그림에는 0점을 주어 점수처리하였다.

이 도구의 그림은 17cm×8.7cm의 크기로 백지에 흑색펜을 사용하여 그린 것을 사용하였으며 그림에 대한 설명은 그림 윗부분에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 제시 순서는 그림 ⑨ 대 그림 ⑩→그림 ⑪ 대 그림 ⑫→그림 ⑬ 대 그림 ⑭→그림

㊂ 대 그림 ㊃→그림 ㊂ 대 그림 ㊄→그림 ㊅
대 그림 ㊆ 순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성학대 상황의 위험을 구별하기 위하여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 가해 장소의 공공성 등과 같이 3가지 상황 변인을 조작하였다. 대비되는 성학대 위험 상황의 내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대비되는 성학대 위험 상황

상황변인		조건	
가해자의 친숙함	낯선사람	사적 장소	낯선사람 ② 대 아는 사람 ④
	아는사람	공적 장소	낯선사람 ④ 대 아는 사람 ②
가해자의 연령	청소년	사적 장소	청소년 ④ 대 성인 ④
	성인	공적 장소	청소년 ④ 대 성인 ②
가해장소의 공공성	사적장소	낯선 사람	공적장소 ④ 대 사적장소 ②
	공적장소	아는 사람	공적장소 ② 대 사적장소 ④

2) 정서적 반응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Garbarino(1987)의 정서적 반응 질문지, Hazzard, Webb와 Kleemeier(1988)의 지식 질문지, Wurtele과 Miller-Perrin(1987a)의 두려움 측정 도구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두렵다”(1점), “조금 두렵다”(2점), “두렵지 않다”(3점)의 리커트 3점 척도로 되어있다. 질문지의 각 문항별 점수는 1점에서 3점까지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의 정서적 반응은 두렵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학대 위험에 대해 아동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각을 살펴보고 그 지각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실시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프로그램 실시전·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설계는 전후검사 통제 집단 설계이다. 본 연구의 설계를 간략히 도식화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실험 설계

구분	사전 검사	실험처 치유무	사후 검사
실험집단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 정서적 반응 질문지	유 유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 정서적 반응 질문지
통제집단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	무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

3. 실험 설계

4. 연구 절차

사전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연구자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인 보조 연구자 3명에게 사전 검사시의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1996년 4월 1일(월)에 'E' 초등학교 3학년 4개반과 6학년 4개반을 대상으로 각 교실에서 정규수업시간외의 시간에 담임교사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아동들에게 몸의 '소중한 부분'에 대한 개념정리를 위해 수영복을 입은 그림을 함께 제시하면서, "수영복으로 가린 부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며 성학대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몸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거나 보려고 하는 것 또는 여러분에게 그들 몸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게끔하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아동들이 이해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물어본 후, 대답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1주일 후인 4월 8일(월)부터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은 한국미술치료학회(1995), 한국성폭력상담소(1991b; 1993), Swan, Press와 Briggs(1985)의 Talking About Touching(Seattle Institute for Child Advocacy, 1985)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매 session당 50분으로 총 4 sess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프로그램은 4월 8일(월)부터 4월 17일(수)까지 3학년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6학년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50분씩 주 2회로 2주에 걸쳐 총 4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정규수업시간외의 시간에 'E' 초등학교 다목적실(강당)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학년 2개반이 함께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고 보조 연구자 1인은 원만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후 검사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모두 실시한 후, 3학년은 4월 17일(수)에, 6학년은 4월 18일(목)에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은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 정서적 반응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통제 집단은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을 사용하였으며 사전 검사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5.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통계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전·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의 지각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아동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 그리고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집단의 사전 검사 점수를 t-test하였다.

1)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표 4)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사전검사 결과

가해 장소	가해자의 친숙함	
	낯선 사람 M (SD)	아는 사람 M (SD)
사적 장소	0.80 (0.40)	0.20 (0.40) $t = 12.30^{***}$
공적 장소	0.82 (0.38)	0.18 (0.38) $t = 14.02^{***}$

*** $p < .001$

(표 4)에 의하면 낯선 사람과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사적 장소 $t = 12.30$, $p < .001$, 공적 장소 $t = 14.02$, $p < .001$). 즉, 아동들은 사적 장소나 공적 장소에서 아는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하였다.

2)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표 5)에 의하면 청소년과 성인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사적 장소 $t = 5.12$, $p < .001$, 공적 장소 $t = 3.66$, $p < .001$). 즉, 아동들은 사적 장소나 공적 장소에서 성인보다는 청소년에 의한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하였다.

(표 5)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사전검사 결과

가해 장소	가해자의 연령	
	청 소 년 M (SD)	성 인 M (SD)
사적 장소	0.65 (0.49)	0.35 (0.49) $t = 5.12^{***}$
공적 장소	0.61 (0.49)	0.39 (0.49) $t = 3.66^{***}$

*** $p < .001$

3)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표 6) 가해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사전검사 결과

가해장소	가해자의 친숙함	
	공적 장소 M (SD)	사적 장소 M (SD)
낯선 사람	0.86 (0.34)	0.14 (0.34) $t = 17.77^{***}$
아는 사람	0.35 (0.48)	0.65 (0.48) $t = 5.39^{***}$

*** $p < .001$

(표 6)에 의하면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 지각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낯선 사람 $t = 17.77$, $p < .001$, 아는 사람 $t = 5.39$, $p < .001$). 즉, 잠재적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는 공적 장소에서, 아는 사람인 경우는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하였다.

2.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 미치는 효과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의 사전 검사 점수들간의 그리고 사후 검사 점수들간의 paired t-test를 하였다.

1)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표 7)에 의하면 사전 검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지닌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처치전 두 집단의 성학대 위험 지

〈表 7〉 집단별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자의 친숙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낯선 사람		아는 사람		낯선 사람		아는 사람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가해장소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사적 장소	0.78(0.42)	0.81(0.39)	0.22(0.42)	0.19(0.39)	0.47(0.50)	0.75(0.50)	0.53(0.50)	0.25(0.43)
	$t = -0.74$		$t = 0.74$		$t = -4.94^{***}$		$t = 4.94^{***}$	
공적 장소	0.82(0.39)	0.83(0.38)	0.18(0.39)	0.17(0.38)	0.51(0.50)	0.77(0.42)	0.49(0.50)	0.23(0.42)
	$t = -0.28$		$t = 0.28$		$t = -4.70^{***}$		$t = 4.70^{***}$	

*** $p < .001$

각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이 지난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사적 장소 $t = \pm 4.94$, $p < .001$, 공적 장소 $t = \pm 4.70$, $p < .001$). 즉, 실험 집단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낯선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은 감소하였고,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전과 후에 나타난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실험 집단 아동들의 성학대 위험 지각을 학년별로 그리고 성별로 각각의 사전 검사 점수들간의, 사후 검사 점수들간의 paired t-test를 한 결과는 〈표

8〉과 〈표 9〉와 같다.

〈표 8〉에 의하면 사전 검사에서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이 지난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처치전 두 집단의 성학대 위험 지각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이 지난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사적 장소 $t = \pm 2.95$, $p < .01$, 공적 장소 $t = \pm 1.98$, $p < .05$). 즉,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표 8〉 학년별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자의 친숙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낯선 사람		아는 사람		낯선 사람		아는 사람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가해장소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사적 장소	0.76(0.43)	0.80(0.41)	0.24(0.43)	0.20(0.41)	0.59(0.50)	0.34(0.48)	0.41(0.50)	0.66(0.48)
	$t = -0.51$		$t = 0.51$		$t = 2.95^{**}$		$t = -2.95^{**}$	
공적 장소	0.80(0.40)	0.83(0.38)	0.20(0.40)	0.17(0.38)	0.59(0.50)	0.42(0.50)	0.41(0.50)	0.58(0.50)
	$t = -0.38$		$t = 0.38$		$t = 1.98^*$		$t = -1.98^*$	

* $p < .05$ ** $p < .01$

〈표 9〉 성별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자의 친숙함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낯선 사람		아는 사람		낯선 사람		아는 사람	
가해장소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사적 장소	0.79(0.41)	0.76(0.43)	0.21(0.50)	0.24(0.43)	0.55(0.50)	0.39(0.49)	0.45(0.50)	0.61(0.49)
	$t = 0.50$		$t = -0.50$		$t = 1.88^*$		$t = -1.88$	
공적 장소	0.85(0.36)	0.77(0.42)	0.15(0.36)	0.23(0.42)	0.59(0.49)	0.42(0.49)	0.41(0.49)	0.58(0.49)
	$t = 1.10$		$t = -1.10$		$t = 2.34^*$		$t = -2.34^*$	

* $p < .05$

〈표 9〉에 의하면 사전 검사에서 남아와 여아가 지난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처치전 두 집단의 성학대 위험 지각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이 지난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사적 장소 $t = \pm 1.88$, $p < .05$, 공적 장소 $t = \pm 2.34$, $p < .05$). 즉,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여아가 남아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실험 집단의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또한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여아가 남아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2)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표 10〉 집단별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자의 연령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청소년		성인		청소년		성인	
가해장소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사적 장소	0.62(0.49)	0.68(0.47)	0.39(0.49)	0.32(0.47)	0.67(0.47)	0.68(0.47)	0.33(0.47)	0.32(0.47)
	$t = -1.06$		$t = 1.06$		$t = -0.03$		$t = 0.03$	
공적 장소	0.58(0.50)	0.64(0.48)	0.42(0.50)	0.37(0.48)	0.62(0.49)	0.62(0.49)	0.38(0.49)	0.38(0.49)
	$t = -0.97$		$t = 0.97$		$t = 0.03$		$t = -0.03$	

〈표 10〉에 의하면 사전 검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지난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처치전 두 집단의 성학대 위험 지각

은 동일하다. 또한 사후 검사에서도 두 집단이 지난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전과 후에 나타난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실험 집단 아동들의 성학대 위험 지각을 학년별로 그리고 성별로 각각의 사전 검사 점수들간의, 사후 검사 점수들간의 paired t-test를 한 결과는 〈표 11〉과 〈표 12〉와 같다.

〈표 11〉 학년별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자의 연령 가해장소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청 소 년		성 인		청 소 년		성 인	
	3학년 M(SD)	6학년 M(SD)	3학년 M(SD)	6학년 M(SD)	3학년 M(SD)	6학년 M(SD)	3학년 M(SD)	6학년 M(SD)
사적 장소	0.59(0.50) $t = -0.58$	0.64(0.48) $t = 0.58$	0.41(0.50) $t = 0.58$	0.36(0.48) $t = 0.42$	0.69(0.47) $t = 0.42$	0.66(0.48) $t = -0.42$	0.31(0.47) $t = -0.42$	0.34(0.48)
공적 장소	0.56(0.50) $t = -0.35$	0.59(0.50) $t = 0.35$	0.44(0.50) $t = -0.42$	0.41(0.50) $t = 0.42$	0.60(0.50) $t = -0.42$	0.64(0.48) $t = 0.42$	0.39(0.50) $t = 0.42$	0.36(0.48)

〈표 12〉 성별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자의 연령 가해장소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청 소 년		성 인		청 소 년		성 인	
	남 아 M(SD)	여 아 M(SD)	남 아 M(SD)	여 아 M(SD)	남 아 M(SD)	여 아 M(SD)	남 아 M(SD)	여 아 M(SD)
사적 장소	0.63(0.49) $t = 0.39$	0.60(0.49) $t = -0.39$	0.37(0.49) $t = 0.65$	0.40(0.49) $t = -0.65$	0.70(0.46) $t = -0.50$	0.65(0.48) $t = -0.50$	0.30(0.46) $t = 0.50$	0.35(0.48) $t = 0.50$
공적 장소	0.52(0.50) $t = -1.47$	0.65(0.48) $t = 1.47$	0.48(0.50) $t = -0.50$	0.35(0.48) $t = 0.50$	0.60(0.49) $t = -0.50$	0.65(0.48) $t = 0.50$	0.40(0.49) $t = 0.50$	0.35(0.48) $t = 0.50$

〈표 11〉과 〈표 12〉에 의하면 사전 검사나 사후 검사에서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이 학년이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3)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각각의 사전 검사 점수들간의 그리고 사후 13)과 같다.
검사 점수들간의 paired t-test를 한 결과는 〈표

〈표 13〉 집단별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자의 친숙함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공적 장소		사적 장소		공적 장소		사적 장소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낯선 사람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낯선 사람	0.87(0.34)	0.86(0.35)	0.13(0.34)	0.14(0.35)	0.47(0.50)	0.80(0.40)	0.53(0.50)	0.20(0.40)
	$t = 0.11$		$t = -0.11$		$t = -5.98^{***}$		$t = 5.98^{***}$	
아는 사람	0.34(0.48)	0.35(0.48)	0.66(0.48)	0.65(0.48)	0.13(0.33)	0.46(0.50)	0.87(0.33)	0.54(0.50)
	$t = -0.19$		$t = 0.19$		$t = -6.66^{***}$		$t = 6.66^{***}$	

*** $p < .001$

〈표 13〉에 의하면 사전 검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지닌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험처치전 두 집단의 성학대 위험 지각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두 집단이 지닌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낯선 사람 $t = \pm 5.98$, $p < .001$, 아는 사람 $t = \pm 6.66$, $p < .001$). 즉, 실험 집단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

그램에 참여한 후,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관계없이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전과 후에 나타난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실험 집단 아동들의 성학대 위험 지각을 학년별로 그리고 성별로 각각의 사전 검사 점수들간의, 사후 검사 점수들간의 paired t-test를 한 결과는 〈표 14〉과 〈표 15〉와 같다.

〈표 14〉 학년별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장소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공적 장소		사적 장소		공적 장소		사적 장소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3학년	6학년
가해자의 친숙함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낯선 사람	0.83(0.38)	0.91(0.29)	0.17(0.38)	0.09(0.29)	0.46(0.50)	0.48(0.50)	0.54(0.50)	0.52(0.50)
	$t = -1.30$		$t = 1.30$		$t = -0.23$		$t = 0.23$	
아는 사람	0.44(0.50)	0.23(0.43)	0.56(0.50)	0.77(0.43)	0.17(0.38)	0.08(0.27)	0.83(0.38)	0.08(0.27)
	$t = 2.54^*$		$t = -2.54^*$		$t = 1.62$		$t = -1.62$	

* $p < .05$

〈표 14〉에 의하면 사전 검사에서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이 지닌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이 잠재적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pm 2.54$, $p < .05$). 즉, 사전 검사에서, 잠재적 가

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6학년 아동은 3학년 아동보다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이 지닌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5〉 성별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

가해장소 가해자의 친숙함	사 전 검 사				사 후 검 사			
	공적 장소		사적 장소		공적 장소		사적 장소	
	남	아	여	아	남	아	남	아
낯선 사람	0.85(0.36)	0.89(0.32)	0.15(0.36)	0.11(0.32)	0.55(0.50)	0.39(0.49)	0.45(0.50)	0.61(0.49)
	$t = -0.65$		$t = 0.65$		$t = 1.88^*$		$t = -1.88^*$	
아는 사람	0.42(0.50)	0.24(0.43)	0.58(0.50)	0.76(0.43)	0.15(0.36)	0.10(0.30)	0.85(0.36)	0.90(0.30)
	$t = 2.28^*$		$t = -2.28^*$		$t = 0.95^*$		$t = -0.95^*$	

* $p < .05$

〈표 15〉에 의하면 사전 검사에서 남아와 여아가 지닌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이 낯선 사람일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pm 2.28$, $p < .05$). 즉, 사전 검사에서 잠재적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여아는 남아보다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하였다. 또한 사후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낯선 사람 $t = \pm 1.88$, $p < .05$, 아는 사람 $t = \pm 0.95$, $p < .05$). 즉, 여아가 남아보다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실험 집단의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또한 성학대 예방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잠재적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하였으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간의 지각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동의 정서적 반응 변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나타난 아동의 정서적 반응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paired t-test를 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나타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7문항중 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 = 2.21$, $p < .05$). 즉,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사전·사후 검사에 나타난 아동의 정서적 반응 차이

정서적 반응		M (SD)	<i>t</i>
낯선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떤가요?	사전 검사	1.50 (0.68)	
	사후 검사	1.61 (0.58)	1.91
아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떤가요?	사전 검사	2.76 (0.44)	
	사후 검사	2.64 (0.58)	2.21*
혼자 심부름 가기가 어떤가요?	사전 검사	2.33 (0.71)	
	사후 검사	2.41 (0.72)	1.37
집에 혼자 있기가 어떤가요?	사전 검사	2.08 (0.75)	
	사후 검사	2.10 (0.80)	0.33
학교 가기가 어떤가요?	사전 검사	2.72 (0.62)	
	사후 검사	2.75 (0.56)	0.63
악몽을 꾸는 것이 어떤가요?	사전 검사	1.59 (0.75)	
	사후 검사	1.64 (0.80)	0.93
성학대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가요?	사전 검사	1.43 (0.69)	
	사후 검사	1.47 (0.73)	0.73
전 체	사전 검사	14.42 (2.66)	
	사후 검사	14.64 (3.05)	1.11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가해자의 친숙함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서,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아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각하였다. 이는 Saslawsky와 Wurtele(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낯선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은 감소하였고,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은 상대적으로 증

가하였다. 이는 아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한 Jacobs 등(1995)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연구 절차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즉, Jacobs 등의 연구는 사후 검사를 실험처치후 2 달후에 실시한 반면, 본 연구는 실험처치후 그 다음날 실시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처치후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이 어느 정도로 지연되는지에 대한 추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이는 나이

든 아동들이 어린 아동들보다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선행 연구(Conte, Rosen, Saperstein, & Shermack, 1985; Daro, 1988; Finkelhor & Strapko, 1991; Liang, Bogat, & McGrath, 1993; Tutty, 1992; Wurtele & Miller, 1987b)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여아도 남아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도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여아가 남아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가능성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첫째는 인지적인 발달상의 차이로, 3학년 아동은 6학년 아동보다 인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같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성학대에 대한 개념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아동 개인의 인지적인 역량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성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으로, 6학년 아동은 3학년 아동보다 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부모, 학교, 또래, 매스컴, 그밖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성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양적으로는 많다 할지라도 남아들이 노출되어 받는 피드백은 여아들이 노출되어 받는 피드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는 남아보다는 여아의 순결을 강조하는 성교육으로 성학대의 방어의식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겠다. 이는 곧 성학대의 위험을 여아가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아가 성학대 위험을 낮게 지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성학대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낮게 지각하므로 방어의식 또한 낮다고 하겠다. 이렇게 방어의식이 낮기때문에 남아들을 대상으로 한 성학대 피해율이 증가될 수

있을뿐 아니라 정작, 성학대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남성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극도의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잠재적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서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성인보다 청소년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각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도 청소년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전·후의 청소년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은 차이가 없었으며 학년별, 성별 차이도 없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각하는 것은 성인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지각한 Jacobs 등(1995)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성인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아동들과는 다른,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성인이란 존재는 자신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존재로 인식하므로 “성인=가해자”라고 연관시키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가해자의 연령이 연소화되어간다는 조사(중앙경제, 1992; 한국성폭력상담소, 1991a, 1996)와 일치한다.

셋째, 가해 장소의 공공성에 따른 성학대 위험 지각에서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잠재적 가해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는 사적 장소보다는 공적 장소를 가해 장소로 보았으며, 아는 사람일 경우는 공적 장소보다 사적 장소를 가해 장소로 보았다. 특히, 6학년 아동은 3학년 아동보다 잠재적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 경우 사적 장소를 가해 장소로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공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 지각은 감소하였으나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 지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그러한 경향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별 차이는 없었다. 이는

사적 장소에서의 성학대 위험을 높게 지각한 Jacobs 등(1995)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넷째,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전과 후에 나타난 아동의 정서적 반응은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으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낯선 사람, 심부름 가는 상황, 집에 혼자 남겨진 상황, 학교 가는 상황, 악몽, 성학대 등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낯선 사람, 집에 혼자 남겨진 상황, 학교 가는 상황 등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Wurtele과 Miller-Perrin(1987a)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나, 악몽, 성학대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 Swan 등(1985), Hazzard, Webb와 Kleemeier(1988), Garbarino(1987)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통해 아동들은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전체적인 정서적 반응 변화는 없었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시해주며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이러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류층 가정의 3학년 아동과 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학대 위험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았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과 빈곤층, 상류층 아동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아동들의 성학대 위험 지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상황별 위험 그림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잠재적인 성학대

상황을 단지 12개의 그림으로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개의 그림 중 1개의 그림을 선택하는 측정 도구의 제한점으로 프로그램 실시후, 아는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은 증가한 반면 낯선 사람에 의한 성학대 위험 지각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학대 상황에서의 위험 지각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여러 유형별로 제작·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지 하나의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성학대 위험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들의 성학대 위험 지각을 비교·분석·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따른 아동들의 정서적 반응 변화를 살펴본 결과, 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역효과를 심도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 미치는 효과를 단기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노경순(1992). 아동성학대예방에 대한 국민학생 어머니들의 태도와 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익생, 이영식, 이길홍(1991). 신문에 게재된 소아 성폭력 사례에 관한 내용분석. 신경정신의학, 30(1), 222-228.

- 손승아(1992).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행동기술 훈련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범죄 '계획적 범행'(1992. 12. 10). 중앙경제.
- 이화연(1981). 우리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서울:돌베개.
- 최영해(1993). 성적 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방어행동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미술치료학회(1995).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제. 대구:동아문화사.
- 한국성폭력상담소(1991a). 나눔터 2. 한국성폭력 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1991b).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어린이 성폭행 예방과 대책-.
- 한국성폭력상담소(1993). 내몸은 내가 지켜요. [비디오]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나눔터 18. 한국성폭력 상담소.
- Conte, J. R. (1984). Research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buse of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 Conte, J. R., Rosen, C., Saperstein, L., & Shermack, R. (1985). An evaluation of a program to prevent sexual victimization of young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9, 319-328.
- Daro, D. (1988). *Confronting child abuse: Research for effective program design*. New York: The Free Press.
- Finkelhor, D. (1979). Sexually victimized children. New York: The Free Press.
- Finkelhor, D., & Strapko, N. (1991). Sexual abuse prevention education: A review of evaluation studies. In D. J. Willis, E. W. Holder, & M. Rosenberg (Eds.),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Developmental and ecological perspectives*(pp. 150-164). New York: John Wiley & Sons.
- Garbarino, J. (1987). Children's response to a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 A study of the Spiderman comic. *Child Abuse & Neglect*, 11, 143-148.
- Hazzard, A., Webb, C., & Kleemeier, C. (1988). Child sexual assault prevention programs: helpful or harmful? Unpublished manuscript, Emory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Atlanta, GA.
- Jacobs, J. E., Hashima, P. Y., & Kenning, M. (199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risk of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19, 1443-1456.
- Kempe R. S., & Kempe C. H. (1984). *Child Abuse*.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p. 43.
- Kolko, D. J., Moser, J. T., Litz, J., & Hughes, J. (1987). Promoting awareness and prevention of child sexual victimization using the Red Flag/Green Flag program:An evaluation with follow-up. *Journal of Family Violence*, 2, 11-35.
- Liang, B., Bogat, G. A., & McGrath, M. P. (1993). Differential understanding of sexual abuse prevention concepts among preschoolers. *Child Abuse & Neglect*, 17, 641-650.

- Melton, G. B. (1992). The improbability of prevention of sexual abuse. In D. J. Willis, E. W. Holder, & M. S. Rosenberg(Eds.), *Child abuse prevention*(pp. 168-189). New York:John Wiley & Sons.
- Nibert, D., Cooper, S., Ford, J. Fitch, L. K., & Robinson, J. (1989). The ability of young children to learn abuse prevention. *Response to the victimization of women and child*, 12, 14-21.
- Saslawsky, D. A., & Wurtele, S. K. (1986). Educating children about sexual abuse: Implications for pediatric intervention and possible preventio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1, 235-245.
- Settle Institute for Child Advocacy, (1985). *Talking about touching: A personal safety curriculum*. Seattle, WA: Seattle Institute for Child Advocacy.
- Swan, H., Press, A., & Briggs, S. (1985).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Does it work? *Child Welfare*, 64, 395-405.
- Tutty, L. M. (1992). The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o learn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concepts. *Child Abuse & Neglect*, 10, 85-92.
- Wall, H. R. (1983). Child Assault/Abuse Prevention Project: Pilot program evaluation. Carlotta, Calif, Mount Diablo Unified School District.
- Wurtele, S. K., & Miller-Perrin, C. L. (1986). Harmful Effects of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s? Reassure the par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urtele, S. K., & Miller-Perrin, C. L. (1987a). An evaluation of side effects associated with participation in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programs. *Journal of School Health*, 57, 228-231.
- Wurtele, S. K., & Miller-Perrin, C. L. (1987b). Children's conceptions of sexual abus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184-191.